

이학재 탈당·한국당 U턴 ‘보수대통합’ 신호탄 될까

한국당 당협위원장 선발·전당대회 전후 2차 탈당 관심

[바른미래당 현주소]

이학재 의원이 바른미래당을 탈당하고 자유한국당으로 당적을 옮기면서 보수야권의 정계 개편에도 시동이 걸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번과 같은 집단 탈당이 아닌 나 홀로 탈당에 불과하지만, 향후 보수대통합 국면에서 연쇄 탈당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바른미래당은 물론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탈당, 당협위원장 물갈이... 보수대통합 신호탄 될까

그간 탈당설이 불거질 때마다 당 안팎에서 자주 거명됐던 이 의원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합당해서 만들어진 바른정당이 창당 이래 탈당'호'로 남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이 의원의 자유한국당행(行)이 일단 보수대통합의 신호탄을 쏜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이 의원이 바른미래당에서 '1호 탈당'을 감행하면서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출신 의원들에게도 상대적으로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고 운신의 폭을 넓혀준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보수야권의 정계개편은 한국당 당협위원장 선발과 전당대회가 물려있는 내년 초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국당은 인적쇄신의 일환으로 현역 의원 21명이 맡고 있는 당협위원장을 물갈이하면서 전국 253개 당협 가운데 79곳을 '일반 공모 대상 지역'으로 분류하고 내년 1월 중순 당협위원장을 선발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유승민 의원(대구 동울)과 이학재 의원(인천 서갑), 오신환 의원(서울 관악) 등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의 지역구는 일반 공모 대상 지역으로 분류한 반면, 비박계인 이혜훈·정병국·유 의동·정운천·지상욱 의원 등의 지역구는 당협위원장 교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한국당이 바른미래당 내 '복당파'의 재입당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과 의원들을 선별적으로 가려 보겠다는



김병준(오른쪽)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8일 한국당에 복당하는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과 만나 "마음고생이 많으시다.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는 '갈라치기'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지만 단정하기 힘들다. 오 의원이 공개적으로 복당을 거부하고 있고, 하태경 의원 지역구(부산 해운대구감)도 당협위원장 교체 대상에 포함돼 복당파를 배려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보수진영에서는 다음 총선을 앞두고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의 한국당 복당으로 보수대통합이 실현될 것이라는 정계개편 시나리오가 여전히 비중 있게 거론되고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탈당을 단행할 만한 충분한 명분이나 여건이 무르익지 않았다는 의견도 많다.

옛 바른정당 출신의 한 의원은 "한국에서 중도 정당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정치하는 건 힘들다는 걸 실감하고 있다"면서도 "앞으로 당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지만 한국당으로 돌아갈 생각은 절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탈당 도미노' 임박한 건 아니지만...잠재적 '뇌관' 많아

이학재 의원의 탈당으로 바른미래당이 원내 교섭단체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 건 아니지만 정체성을 둘러싼 '집안싸움'이 재연될 소지가 없는 건 아니다.

중도개혁 노선을 추구하는 바른미래당에서 이념이나 정체성 혼란으로 한국당 복당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의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유승민 전 대표와 지상욱 의

원, 이언주 의원 등 주로 바른정당 출신이나 보수 색채가 짙은 의원을 중심으로 탈당설이 꾸준히 오르내리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당 지역위원장(경기 광명)에 응모한 상태지만, 차기 총선에서 당적과 지역구를 함께 옮겨 김무성 의원의 지역구(부산 중구·영도)를 물려받아 출마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옛 새누리당 출신 의원을 포함한 바른미래당 내 보수 성향 의원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유승민 전 대표는 공개적인 정치활동을 재개하면서 당 정체성에 대한 걱정과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유 전 대표는 "바른미래당에서 '보수'라는 말을 쓰지 말자' 원칙도 오른쪽도 아니고 중도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안보·경제·복지에 대해 생각을 같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괴롭다"며 "제가 생각하는 개혁보수와 바른미래당이 조립이나 방향이 좀 맞지 않는다는 괴로움이 있다"고 토로한 바 있다.

바른정당 출신의 한 의원은 "바른미래당은 보수정당치고는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의원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지만 지지율은 생각보다 낮게 나온다"면서 "결국 스타플레이어는 많지만 '팀워크(teamwork)'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팀을 이끄는 감독이 아니면 누구 책임이냐"며 순화규 체제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文대통령 지지율 46.5%... '김태우 파장'에 역대 최저치

민주 37.9% · 한국 25.7% · 정의 7.9% · 바른 4.9% · 평화 3% 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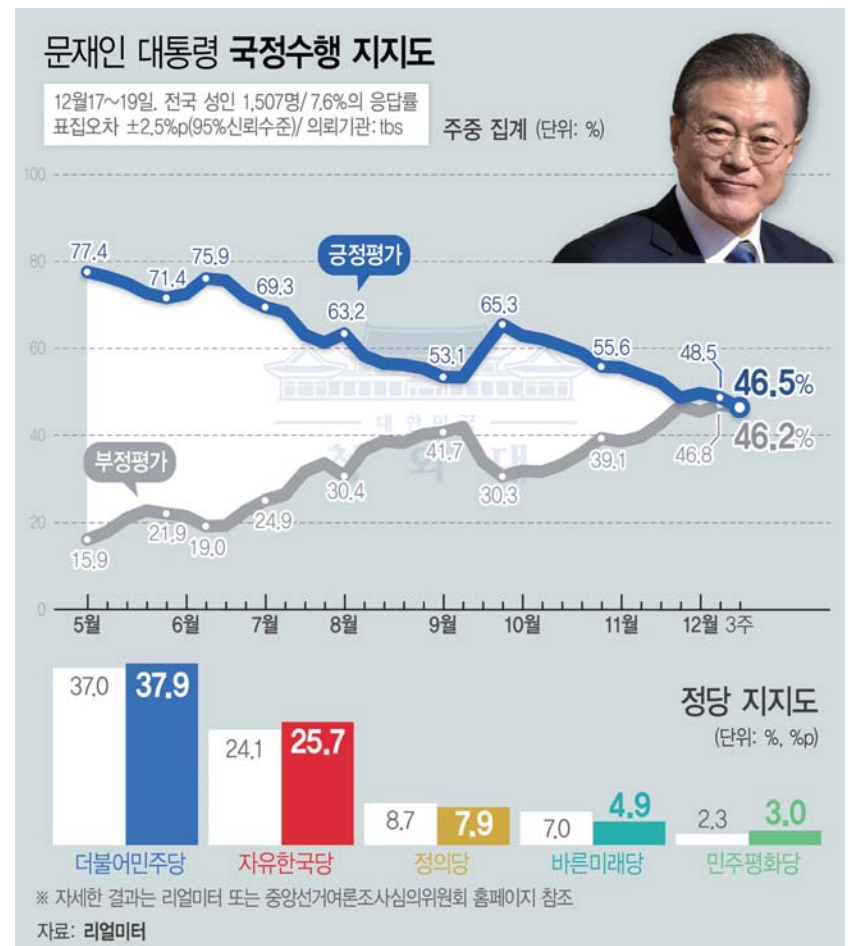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처음으로 40%대 중반으로 떨어지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대통령인 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에서 일했던 김태우씨의 잇단 폭로에 대한 여파가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17~19일 사흘 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0일 공개한 12월3주차 주중집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5%p·응답률 7.0%)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6.5%가 문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지난주 대비 2%p 내린 수치로 역대 최저치다. 앞선 최저치는 11월4주차 48.4%였다.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부정평가가는 지난주 대비 0.6%p 내린 46.2%(매우 잘못함 30.4%, 잘못하는 편 15.8%)로 나타났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는 오차범위(±2.0%p) 내인 0.3%p 격차로 좁혀졌다.

리얼미터는 이번 하락세에 대해 '비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정보보서 언론유포와 잇따른 '민간인 사찰' 주장 언론인타류, 이당의 '불법사찰' 공세가 사흘 연속 확산한 데 따른 것'이라고 풀이했다.

지난 14일 49.1%를 기록한 문 대통령 지지율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된 17일에는 김씨의 폭로가 이어지면서 48.1%로 하락했다. 다음날인 18일에도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업무보고가 이어졌으나 김씨의 파장에 47.2%로



내려있었다. 청와대가 김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19일에는 46.2%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는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 경기·인천과 서울 20대와 50대, 60대 이상, 학생과 무직, 사무직, 보수층과 진보층을 중심으로 하락세를 이끌었다. 반면 충청권과 호남, 30대, 노동직과 주부, 중도층에서는 상승했다. 정당지지율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이 지난 주 대비 0.9%p 오른 37.9%를 기록했다. 자유한국당(25.7%), 정의당(7.9%), 바른미래당(4.9%), 민주평화당(3%) 순으로 민주당의 뒤를 이었다. 한국당은 1.0%p 올랐고, 정의당과 바른미래당은 각각 0.8%p와 2.1%p 각각 내렸다. 평화당은 0.7%p 올랐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당, 잉크도 안마른 ‘연동형 비례제’ 합의 탄소리”

민주평화당, 노골적 합의문 지우기 나선 것 규탄

민주평화당은 20일 여야 5당이 합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 개혁과 관련, 자유한국당을 향해 “합의문에 서명하지 얼마나 됐다고 탄소리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정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제 합의문에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 한국당이 노골적으로 연동형 비례제 합의문 지우기에 나선 것을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당은 선거제 개혁 합의 이후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기정사실화하는 건 명백한 사실을 호도하는

일(나경원), ‘연동형 비례제는 군소정당이 살아남기 위한 제도(정유섭) 등으로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무산시키려는 저의가 있다”고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그렇다면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합의문에 서명한 나경원 원내대표는 유령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연동형 비례제를 무산시켜 이득을 볼 것으로 계산했다면 주권자를 크게 잘못 튀긴 것”이라며 “국민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당을 표를 주지 않는다. 한국당은 하루 빨리 연동형 비례제 합의문 정신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지역감정·비례대표 정론특별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Drawing 이호동

062-960-6980
광산구 사암로 340번안길 5

광산구 Together 광산구